프리즘

書評 유감

김태경
'이론과 실천' 대표

일간지를 받아들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면을 먼저 펼쳐 볼 것이다. 나 역시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 창달자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지라 문화면을 먼저 열어보게 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다. 문화면을 열면 출판기사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면수가 8면이었을 때보다 16면, 20면으로 증면된 지금 출판기사에 할애되는 지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늘 느끼게 되어 섭섭함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어쩌다가 출판기사가 눈에 띄게 되어도 그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씁쓸한 느낌을 가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사실을 기술한 기사도 가끔은 그렇거니와, 기획기사는 보다 많은 경우에 오보나 왜곡된 내용이 실리는 까닭이다.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몇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 중복 번역된 책 가운데 신문사에서 임의로(?) 한 출판사의 책만을 선정하여 서평을 싣는다든지(이 경우, 왜 하필 그 출판사의 책이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설명도 없는 때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책(예컨대 연변 등 국외에서 출판된 우리글 책)이 중복 출판되었는데 먼저 출판된 출판사의 책을 제쳐놓고 나중 출판된 출판사의 책을 서평해준다든지, 외국책을 그대로 번역해놓은 책이 국내 저서로 둔갑한 경우에 서평을 실어준다든지, 도대체 오역투성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기가 막힌 번역이라는 상투적인 수식어를 동원하여 칭찬해주고 있다든지, 완역되지도 않은 책을 출판사의 과대선전에 홀려서인지는 몰라도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라는 식으로 선전해준다든지, 그런 예는 여기에서 모두 열거하기가 힘들다.

일간지의 서평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보투성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서평의 기준도 없으며 기사작성자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출판기자의 각 출판사들에 대한 친소관계와 선입견만이 살아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출판사의 이름만으로 출판물의 질과 내용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우리 출판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신문의 서평이나 출판기사 외에는 독자와 출판물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별다른 매체가 없는 현상황에서 볼 때, 독자는 위험스러운 정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토록 암담한 상태를 극복할 만한 대안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대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1월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1호(11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 1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술한 방대한 책이다. 이 책은 태조 때부터 어느 왕까지 기록돼 있는가.

1. 哲宗(제25대)
2. 高宗(제26대)
3. 純宗(제27대)

문제 2

「通文館志」는 조선 숙종 때 金指南이 지은 외교에 관한 책이다. 通文館이란 어느 시대에 생긴 관아인가.

1. 신라
2. 고려
3. 조선

문제 3

이탈리아의 詩聖 단테의 「神曲」은 인간의 영혼이 죄악의 세계로부터 천국을 향해 정진해가는 경로를 묘사한 대 서사시이다. 시집 「新生」과 함께 이 서사시를 쓰는 동기가 됐던 여인은 누구인가.

1. 성모마리아
2. 베아트리체
3. 이브

문제 4

근세소설의 남상(濫觴)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Decameron)의 원뜻은 무엇인가.

1. 10명의 이야기
2. 10일간의 이야기
3. 100가지의 이야기

제47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7호(9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03통, 이중 정답은 98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② 「樂學軌範」

당시 대사헌이던 成俔 등이 편찬한 음악지침서로서 조선 때의 음악원리 · 악기배열 · 무용절차 등이 서술돼 있다. 9권3책.

2. ③ 「桂苑筆耕集」

崔致遠이 당나라에 있을 때 지은 여러가지 글을 모은 한시문집으로 모두 20권4책으로 되어 있다. 活字本(1834, 순조 34)도 있으나 가장 오래된 것으로 1774년(영조 50)의 간행본이 있다.

3. ② 「京都雜志」

조선 영 · 정조의 한학자 柳得恭이 당시 한양의 풍속과 세시를 기록하였다.

4. ① T.S. 엘리엇

1888년 미국 센트루이스에서 태어나 1913년 영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귀화했다. 1920년 자신이 창간한 평론지 「크라이테리온」에 1차대전 이후 지성의 혼란함을 노래한 「황무지」를 발표, 큰 반향을 얻었다.

당첨자

박신영(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 427 / 303)
강춘삼(전남 해남군 · 읍 평동리 180-16 김종수씨댁)
신석화(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4동 523번지)
박규우(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442)
김영애(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9 21 / 2)

출판저널

통권 제 49호/1989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金芝媛 權正子 李權雨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 尹東鎬
업무 · 광고——崔兌源 李羲天
崔炳天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진식자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濟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曺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 · 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 · 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